

## 양성평등한 생활문화와 사회를 위한 가정과교육

유 태 명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가정과교육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은 가정의 생활영역 전반 및 교육적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오늘 발표에서는 교육적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 가정과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볼 때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한 교육, 혹은 가정내의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요구되나 여기서는 주로 학교교육에서의 가정과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양성평등을 다루는 입장: 평등, 차이, 보호의 이슈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의 개념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철학적 의미와 여성주의적 의미로 해석되지만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의 적용되는 것은 전자에 해당하는 교육의 기회 균등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교육정책과 현장적용에서 후자의 입장이 고려되고 있으나 좀 더 개념을 명료하게 규명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은 철학적 의미의 두 가지 평등의 개념으로 시작한다. 하나는 사람들은 모두 동등한 존엄성을 가졌다는 법적 평등 혹은 시민적 평등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평등은 조건의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 공정의 개념에 근거한다. 이와 같은 개념은 개인은 공통의 본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차이가 존재할 경우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고 보는 즉, 평등과 차이는 화해할 수 있다고 보는 조건의 평등을 의미한다. 보편적으로 교육에서는 이 두 가지 평등의 개념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로 해석한다. 이를 양성 평등의 개념에 적용하면 '남성과 여성의 같은 점은 같게, 남성과 여성의 다른 점은 다르게'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 대한 논쟁은 남성과 여성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나 연구 결과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보편적으로 성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보며 여러 분야의 연구가 유전적 요인, 호르몬 요인, 환경 요인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다(정세화, 오은경 역, 1983). 그러나 아이가 태어날 때 원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며, 선천적 요인이 얼마만큼 후천적으로 아이의 능력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후천적 요인에 의한 대표적인 사회화를 부모나 사회, 학교에서의 교육으로 생각할 때 양성평등 이념의 실현이나 의식의 고양을 위한 교육은 양성평등 생활문화와 사회를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즉, 교육은 선천적인 차이 이외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어떤 방법과 방향으로 수행하여야 하는지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주의적 의미의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Vogel, 1993),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 종식(Mackinnon, 1987),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지는 차이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Young, 1990)으로 정리된다(최경희, 재인용). 첫째의 개념은 남성과 여성이 차별 받을 차이가 없다는 전제 하에 동일하게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둘째의 개념은 양성평등의 문제는 권력 구조의 문제이므로 양성평등은 성 위계 제도를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마지막 개념은 남성이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누려온 특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양성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여성에게 특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여성연구소, 1999). 첫 번째 입장은 양성평등 교육에 적용할 때 철학에서의 평등주의적 입장과 같이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에서의 동일한 대우는 현재로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둘째 입장의 경우는 비판적 혹은 적극적 양성평등 교육을 통하여 일부분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교육 이외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마지막 입장도 교육현장이나 수업에 적용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 전반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고 본다.

시사점: 양성평등을 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로서 철학과 여성학적인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볼 때 양성평등은 ‘평등’, ‘차이’, ‘보호’와 관련하여 논쟁이 있으며, 이에 대해 각 학문에서 연구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무엇을 어떻게 평등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차이 즉 같음과 다름을 어떻게 규명하고 드러난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차이를 무시할 것인지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학문에서의 협동적인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 2. 양성평등을 다루는 교육의 제 접근

### (1)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 실천의 이슈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즉 양성평등교육의 제 접근은 앞서 살펴본 양성평등을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 입장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된다. 교육 혹은 가정과교육은 이론의

개발 자체보다는 실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 기초학문이나 가정학 세부 영역에서 제시된 이론을 교육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용하게 된다. 양성평등에 대한 철학이나 여성학적인 이론이나 개념은 서로 상충한다고 볼 수 없고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교육에서 제시된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접근이나 모형을 검토해본 결과 양성평등의 개념에 포함되었던 ‘평등’, ‘차이’, ‘보호’의 논쟁이 교육에서의 ‘기회’, ‘과정과 경험’, ‘결과와 확장’의 논쟁으로 확장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러 연구들은 항상 절차적인 것은 아니지만 덜 발전적인 단계에서 더 발전적인 단계의 양성평등교육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의 <표 1>에서 여러 연구에서 양성평등교육의 종류, 단계, 학습모형의 형태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최경희(2001)가 제시한 학습모형은 다른 세 연구와 본질은 다르지만 교과교육에 적용할 때의 실제 교수학습방법을 단계를 보여주므로 포함하였다.

<표 1>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교육에서의 평등의 개념은 단순히 같음으로서의 평등에서 발전하여 성을 무시하여야 하는지, 성별 차이를 배제하여야 하는지, 성을 민감하게 고려하여야 하는지의 논의로 귀결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성의 무시, 배제, 민감함은 자칫 교육현장 적용 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체육시간에 남녀 동일한 교육재료로 동등하게 접근하게 했을 때 여학생은 더 많은 교육기회를 받는 게 아니고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Houston(1985)은 형식적 교육기회 자체가 차단되거나 장애가 있을 때는 성을 무시하고 그 장애를 없애으로써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지만 이미 형식적인 기회가 제공된 경우에는 성을 무시하는 방법이 구체적인 교육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약화시켰다고 하였다(조경원, 1996 재인용). 이 사례는 Houston(1985)의 성을 의식하지 않는 교육, 조경원(1996)의 성중립적 교육, 김재춘·왕석순(1999)의 소극적인 양성평등 교육에 해당한다. 이는 성중립적인 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되, 교육목적, 교수학습 방법, 교육내용, 학습경험, 교육평가를 교육의 과정과 경험 및 결과를 고려하여 성에 민감한 교육으로 접근할 필요를 말해준다. 대부분 성취도에서 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교과는 체육, 수학, 과학, 기술과 가정을 들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원천적인 것인지 사회·문화적으로 길러진 것인지,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 원인을 떠나서 현실에서는 성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성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시사점: 이상의 논의는 교육은 기회만 주어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성을 무시하거나 성을 배제를 통한 교육의 ‘기회’의 차원에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더 나아가 성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의 ‘과정’, 양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이나 양성평등의식의 고양, 양성평등한 학업성취도를 위한 교육의 ‘결과’를 감안하여야 하며, 교육에서의 성의 문제는 어떻게 조화롭게 접근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논의의 당위성을 제공해준다. 여기에서 ‘결과’는 단순

〈표 1〉 양성평등교육의 제 접근

연구자	제 접근		
Houston (1985)	성중립적(Gender Neutral) 교육		
	성을 의식하지 않는 교육	성별차이를 가져오는 조건을 제거하는 교육	성에 민감한 교육
	-입학기준에 성을 고려하지 않음 -남녀 모두에게 기술과 가정을 가르침 -남녀공학체계	-체육시간에 성취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레슬링 같은 활동 제거 -성별 차이가 나는 IQ테스트 문항 배제	-교육상황에 미치는 성의 영향을 고려 -성이 차이를 만들 때는 성을 고려하고 차이를 만들지 않을 때는 성을 무시
조경원 (1996)	성중립적 교육		성에 민감한 교육
	-남녀차별이 제거된 교육 -남녀공학체계 -성역할 고정관념 철폐 -남녀 불평등한 교육과정 철폐		-남녀간의 인식방식과 학습방법을 고려한 교육 -남녀 모두 높은 성취
김재춘, 왕석순 (1999)	양성평등한 교육		양성평등한 의식을 위한 교육
	소극적인 양성평등교육	적극적인 양성평등교육	비판적인 양성평등교육
	-양성에게 동일한 교육 제공 -기술/가정 남녀 공통 이수	-동일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성을 고려한 교육제공 -수학교육에서 영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동학습 실시	-성차별 비판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제공 -여성과학자가 적은 이유 분석 및 대안탐색
최경희 (2001)	양성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습모형		
	문제인식	실행	확장
	-성편견이나 성차별적 생각이나 언행을 한 적이 있는지, 성차별적 교육장면을 찾아내 성차별의 문제점을 인식	-온화한 방법: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교육제공 -적극적 방법: 동일한 교육성취를 위한 특정 성을 고려한 교육제공 -비판적 방법: 성차별에 대한 비판적 인식 갖게 함	-양성평등적인 의식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확장교육 실시

히 학교에서 무엇을 이루었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실생활에서 내재화되고 행동, 판단, 배려를 바탕으로 '실천'될 수 있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김재춘, 왕석순(1999)이 제안한 양성평등한 의식을 위한 교육의 접근의 경우도 의식의 고양이 행동, 판단, 배려의 실천과 실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성평등한 의식을 위한 교육을 '비판적' 방법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실천비판적' 방법으로 확대시킨다면 양성평등의 실현에 더 근접할 수 있다고 본다. 최경희(2001) 학습모형의 확장 단계에서 '실천'의 방향과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2) 잠재적 교육과정과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에서의 성의 문제는 어떻게 조화롭게 접근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의 주는 교육의 '과정'과 '결과'와 관련된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에 만연된 관련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된다. 잠재적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Beyer & Apple(1988)과 Apple(1982)은 교과서와 권력의 관계를 밝힌 바 있으며 교육사회학의 대표적 주제이기도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범위는 넓지만 주로 교과서, 교육이념과 목표,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수방법, 수업 중 학습활동, 교과목 선택이나 제공, 교사의 언행이나 의식, 교육적 기대, 교육환경이나 위계구조, 교훈 등에 이중적 성차별구조도 존재한다. Tidball(1989)은 이를 '남녀불평등한 교육 실체'라 하고 '형식적 교육기회는 열려있으나 잠재적 교육과정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하였다. 명시적 교육과정에서조차 이와 관련된 당면 문제가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선택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가정과 기술과목으로 대변되는 가정과학과 정보와 컴퓨터 선택과목이 성별 분리를 새롭게 가져올 수 있으며, 가정과 기술과목이외에도 수학 및 과학관련 선택과목과 다른 교과목의 선택의 성별 분리를 주의깊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에서는 양성평등의 문제는 교육에서의 성별 기회 불평등과 같은 명시적인 것에 비해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고 대부분의 교육문제가 그렇듯이 해결을 위해 장기간이 요구된다.

양성평등교육에서는 양성평등한 생활문화와 사회의 실현을 저해하는 성차별과 관련된 이데올로기 비판이 요구된다. 특히 Houston(1985)의 성에 민감한 교육, 조경원(1996)의 성중립적 교육, 김재춘·왕석순(1999)의 비판적 양성평등교육, 최경희(2001) 모형의 문제인식 단계와 실행단계의 비판적 방법, 확장의 단계에서는 성 불평등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관련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필수적이다. 이는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측면에서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와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해결하는 데 원천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교육의 제 영역인 가족생활, 의식주생활, 관리와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데올로기나 영향을 파악하여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근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양성평등교육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는 가부장 이데올로기로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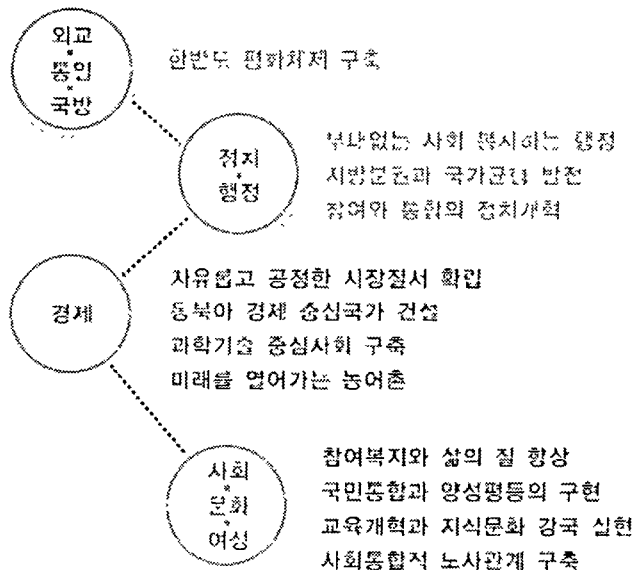
사의(성별화된) 별개영역 이데올로기 등을 들 수 있다.

시사점: 이 주제는 양성평등 뿐만 아니라 교육과 가정생활의 제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나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쟁점의 한 요소로 인식할 필요성만 언급하는 것으로 줄인다.

### 3. 양성평등과 관련한 정책 및 교육관련 연구 동향

#### (1) 양성평등 관련 정책 동향

참여정부의 국정비전에 제안된 4대 국정목표는 다음 <그림 1>과 같으며 교육과 가정학 관련 목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에게 교육과 가정학 관련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을 부단히 혁신해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루겠습니다. 지식정보화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문화를 함양하고 문화산업의 발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국가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혁신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

어나 저마다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노약자를 비롯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을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모든 종류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나가겠습니다.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교령사회의 도래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2003년 2월 25일).

현 정부의 국정목표가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포함되고 양성평등 구현이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여년 간의 사회 각 층의 노력이 뒷받침된 것은 물론이겠지만 그 초석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법 제 7조에 의거하여 1997년 제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998-2001)이 수립된 것이다. 제 1차 계획의 6개 기본전략과 20대 정책과제 중에서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하나의 정책과제로 설정되었다. 세부추진과제로 '남녀평등한 교육과정의 구성'과 '중등교원에 대한 남녀평등의식교육 확대'로 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8년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신설되었다. 여성정책 담당관은 행정자치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의 6개 부처에 설치되었고, 교육부 내에 양성평등 교육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의 2000년 추진 실적 중에서 양성평등관련 실적으로 '남녀 성차별적 해소 및 양성평등교육 이념의 확산'(주요 과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구성과 운영, 학교 현장 개선 및 성차별 관행 개선)과 2001년의 '양성평등한 학교문화의 정착'(주요 과제: 각급학교에 양성평등지도 지침 시달, 가정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추진, 양성평등 연구 시범학교 운영, 관리자 및 교원 양성과정에 양성평등 교육과정 편성 권고, 양성평등한 교육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지원방안 수립)을 들 수 있다.

1999년에는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동 법 제 4조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에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였다. 이어 2000년에는 교육기본법에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본 조항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며, ②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고, ③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 증진을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정해숙 외, 2001). 이상의 일련의 정책, 법령, 행정의 측면에서의 양성평등관련 지원이 시작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야할 것이다.

## (2) 양성평등교육 관련 지표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정부 부서와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양성평등 관련 연구나 조사를 해오고 있다. 정해숙·최유선(2001)은 OECD 국

가의 교육제도 및 교육개혁 동향, 성별 교육현황, 성평등 교육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그 지표와 세부항목은 다음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조사된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양적 data는 방대하여 여기서는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교육기회의 균등이나 조건의 평등과 관련된 지표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지표 중에서 성별 교과선택 및 학업성취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호주, 미국, 핀란드, 영국, 프랑스의 경우 수학, 과학, 실과 등의 교과를 성별에 따라 선택하는 양상이 달랐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나, 과학의 경우는 남학생의, 읽기의 경우는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김양희·이수연·김혜영(2002)은 남녀평등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남녀평등주의를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속성, 그리고 역할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특정 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성차

<표 2> 성평등 관련 교육정책의 지표와 세부항목

구분	하위영역	자료 및 세부항목
교육제도 및 교육개혁 동향	교육제도	학제(취학전/초등/중등/고등교육)
	교육개혁	교육개혁 동향
성별 교육현황	교육에의 접근기회	학교급·성별 취학률/진학률 학교급별 여학생 구성비
	교육과정	교과선택 학업성취도 계열별 여학생 구성비
	교원	학교급별 여교사(교수) 구성비 직위·성별 분포 계열별 여교수 구성비
성평등 교육정책	정책추진체계	관련법제 정책담당부서
	교육과정	성별 교과선택 교과서 상의 성차별적 교육내용 교수·학습과정 스포츠 및 체육활동
	진로 및 직업교육	진로지도/취업지도 직업교육
	교사/교수	남녀평등의식교육 여성관리직 지원 교직여성화
	사회교육	성인의식교육



〈표 3〉 중·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남녀평등의식을 갖춘 남녀의 생각과 행동특성

영역	항목	내용
가정	가사부담	남학생도 빨래등 가사일을 해야한다; 여자라고 해서 일이나 가사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 맞벌이를 하면 집안일을 나누어 해야한다; 아빠가 빨래를 해도 된다
	자녀양육	아이를 같이 교육시킨다; 남자도 집에서 아이를 돌 볼 수 있다
	가족부양 역할	여자가 일하고 남자가 살림을 할 수도 있다; 남편이 능력이 안되면 아내가 돈을 번다
	가족제도	호주제도를 없애야 한다
	아들선호	아이를 낳았을 때 더 기뻐하지 않는다
	평등한 부부관계	아내가 원하는 것을 협조해준다
학교	학습능력, 교과목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 여학생은 수학을 못한다; 여학생도 체육시간을 좋아할 수 있다
	필요과목	여학생도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남학생도 가사에 관하여 배울 필요가 있다
	성별 학생지도	체벌에서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다
	운동, 특별활동	체력장 때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다; 남학생이 발레를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교복	여학생도 교복으로 바지를 입을 수 있다
직업	성별직업 및 업무	남자 직업과 여자 직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여자도 기술직이나 전문직을 가질 수 있다; 여자도 정치나 경영 일을 할 수 있다; 남자도 감호사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조종사나 경찰에 여자:남자가 50:50이어야 한다
	임금 및 승진	월급을 공평하게 주어야한다; 회사에서 여자에게도 승진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성상사	여자가 과장이나 그 이상의 직위를 맡을 수 있다; 여자가 승진하면 무시하지 않는다; 여자도 사장이 될 수 있다
	회식문화	회식에서 여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지 않는다
사회	외모와 옷차림	여자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남자도 치마를 입을 수 있다; 여자는 예쁘면 시집을 잘 간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없앤다
	이성교제와 성행동	데이트할 때 남자와 여자가 더치페이를 한다; 여자는 정조를 지킨다
	여성의 행동규범	어디서 여자가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여자가 말투나 행동이 대범하고 힘든 일도 회피하지 않는다; 여자도 터프할 수 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여자라고 태권도나 검도 등 운동을 못하라는 법이 없다
	남성의 행동규범	남자도 피부미용을 할 수 있다; 남자도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 등을 해도 된다; 남자에게도 섬세함이 있다
	성차별	여자로 태어나도 실망하지 않는다
기타	취미와 놀이, 정치참여, 군입대	

별을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중, 고등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서 남녀평등의식을 갖춘 남학생(혹은 성인 남성)과 여학생(혹은 성인 여성)의 생각과 행동 특성을 기술하게 한 결과 가정, 학교, 직업, 사회의 생활영역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생활' 영역에서는 가사부담, 자녀양육, 가족부양 역할, 가족제도, 아들선호, 평등한 부부관계, '학교생활' 영역에서는 교과목 학습능력, 필요과목, 성별 학생지도, 운동이나 특별활동, 교복, '직업생활' 영역에서는 성별 직업 및 업무, 임금 및 승진, 여성상사, 회식문화,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외모와 옷차림, 이성교제와 성행동, 여성의 행동규범, 남성의 행동규범, 성차별과 관련된 항목을 기술하였다. <표 3>은 각 생활영역의 여러 항목 혹은 지표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남녀평등의식을 알 수 있는 1차 자료라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학생들의 응답에서 이미 남녀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아빠가 빨래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해도 된다'로 표현하녀 빨래의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유사한 예로 '남자도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을 협조해준다', '여자는 정조를 지키다' 등이 있으며 남녀의 행동에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은 치료적 차원의 내용과 관련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길러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양희 외(2001)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향후 여성정책의 성주류화<sup>8)</sup>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민여론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표 4>와 같이 여성인력자원의 육성과 정보문화 인프라 구축, 여성 경제 세력화, 여성의 정치 세력화, 여성 삶의 질 향상, 여성정책 방향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이 "여성중심 접근에서 젠더중심 접근<sup>9)</sup>으로, 더 나아가서 주류의 모든 영역에서 젠더 접근을 가능하게 함을 지향"하며, 앞으로의 여성정책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세력화와 성주류화를 도모하고 사회에서 남녀간의 역할과 관계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p. 575)할 것을 제안하였다.

8) 성주류화란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UN/DAW/WEDLAC, 1998, 김양희 외, 2001 재인용).

9) 젠더중심 접근(Gender-and-Development)은 여성발전을 위한 초기전략인 여성중심 접근(Women-in-Development)이 여성에게 초점을 둔 반면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전략이다. 사례로 스웨덴에서 아버지들에게 일정 기간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김양희 외, 2001).

〈표 4〉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전략 개발을 위한 의견수렴 항목

영역	세부항목	
여성인력자원 육성과 정보문화 인프라 구축	<여성인적자원 육성> · 학교현장 성평등 기반구축 · 남녀평등교육에 대한 인식 · 여성인력 개발정책 · 여성평생교육 활성화 · 남성인식교육	<여성 정보능력 향상, 남녀평등위한 미디어구현> · 정보접근권과 여성의 지위 · 정보화교육 · 남녀평등한 미디어의 역할 강화
여성의 경제 세력화	· 고용불안정 해소 정책 · 취업여성에 대한 차별 · 10년 후 여성들의 취업 · 직장내 성희롱 근절 위한 방안 · 탄력 재택근무 · 우선적인 여성 실업 대책	
여성의 정치 세력화	· 제도정치외 여성참여 · 통일준비과정에 여성의 적극적 참여 · 시민사회의 여성참여	
여성 삶의 질 향상	<가부장적 가족제도 개선> · 호주제도 · 가사노동 가치선정 · 가족관의 변화 · 가족정책의 방향	<모성보호의 확대와 여성복지 증진> · 연금 분할수습권리 · 모성보호 확대 · 여성에 대한 폭력

시사점: 이상의 정책의 동향이나 조사에서 사용한 지표나 영역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연구할 분야와 주제는 방대하며 이는 실제생활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방대한 부분에서 정책 및 제도의 뒷받침, 의식의 전환, 실현할 수 있는 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표가 기회와 조건의 평등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할 점은 양성평등교육이나 정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혹은 각 부분에서 혁신적인 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인가일 것이다. 확실한 것은 사회 각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교육의 역할은 정책이나 제도의 지원과 함께 핵심이 된다.

#### 4. 심층면접에 나타난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아동, 가족, 식, 의, 주, 가정관리, 소비 영역에서의 심층면접의 질문과 가정교육 영역에서의 질문

의 성격이 달랐고, 면접 대상자들의 실제생활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가정과교육의 교육내용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들의 응답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가정교육<sup>10)</sup> 영역의 심층면접은 별도의 서울, 경기, 경남 진주 지역의 가정과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교사들은 모두 30-40 대이고, 기혼이었으며, 석사과정에 있거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연구진행 상 모든 영역에서의 심층면접이 지연되었고, 추후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해석은 응답을 최소한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대체하였고, 교사들의 응답을 직접 제시하였다.

### (1) 가족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가족생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여러 내용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특히 성역할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양성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삽화에서나 가부장적 가치관이 아직 남아있고, 가사노동, 의사소통,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련시켜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고, 양성불평등한 현실을 인식시키며,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 가족관계의 시대적 변화 설명은 잘되고 있으나, 앞으로의 시대 변화, 사회적 요구 등을 더 보완하여 미래 대비 가치관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 청소년의 특성이나 성과 이성교제, 특히 성역할 면에서 양성평등적 입장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관계 면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아 의사소통이나 가사노동 측면에서의 양성평등적 입장이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
- 우리 나라와 세계의 가정 생활 문화를 비교해 보고 미래 자신의 바람직한 가족생활 모습을 그려 보는 것과,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 결혼과 부모됨에 대해 어떠한 준비와 지식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에는 다양한 가족형태(독신, 입양가족, 비혈연가족, 편부모가족, 노인가족, 재혼가족, 딩크족 등)가 나타나기 때문에 남녀 모두 자신이 가정생활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 가족 구성원과의 사랑과 신뢰, 협동하는 정신, 함께 나누어 갖는 마음만이 약화되는 가정을 우리 사회에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부장적인 농경사회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 탈피, 성역할은 자라면서 인식되

10) 1~5번 문항은 '양성 평등한 가족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정관리와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해 중·고등학교 가정과목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혹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가정과목에서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이다. 6번 문항은 '양성 평등한 가정생활(일반적인 생활 전반)을 이루기 위해 남녀 성인에게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교육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이다. 7번 문항은 '양성 평등한 가정생활(일반적인 생활 전반)을 이루기 위해 가정 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가정 내에서의 교육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양성 평등한 가정생활을 이루기 위해 가정 내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이다.

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변화됨, 양성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사 일에서부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필요하다.

- 삽화나 사진에서 아직도 성차별적 요소가 남아있다. 내용면에서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거의 해소된 것 같으나 교사가 어떤 관점으로 가르치느냐가 더 중요하다
- 현재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수업을 하기는 힘들지만, 교사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7차 교육과정은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라 가족생활에서 가사노동분담이나 부모, 부부의 역할분담에서 양성평등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양성평등하지 않은 사회라는 현실을 깨닫고, 그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가족관계,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등 전반적인 모든 가정생활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 현재 성 역할의 이해, 가족 가치관의 변화, 가족 구성원 역할의 중요성·변화, 가족내의 인간관계, 친족관계에서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 성불평등 현상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관계 영역의 모든 내용에 대한 지도는 필수적이며, 7학년의 첫 단원이므로 학생들에게 양성평등적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매우 유용하다.

## (2) 식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식생활 영역에서는 특정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보다는 모든 내용에서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태도와 의식, 행동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식단작성과 음식만들기의 역할이 여성이 우선이라는 의식이 남아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 조리부문에 대해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으나 조리시 남녀의 공동 참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 기술적 측면(예:요리 실습 등)은 남녀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으나, 의식과 가치관 수준도 다루어야 한다. 단순히 수행평가를 위한 실기능력이 아니라 본인과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는 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 식생활은 실용주의적 입장이라 특별히 남녀 불평등적인 내용은 없다고 생각된다. 학습측면에서도 남학생들이 조리를 오히려 좋아하는 등 교사의 선입견에 따른 지도가 아니라면 양성평등적 입장이 잘 수행되리라 봅니다. 교과서의 사진 등도 양성평등적 입장을 고려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남녀 모두 식사준비와 상차림, 설거지 및 정리정돈 등을 실습하고 식사 준비는 가족 중 누구라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 영양문제와 바른 식습관 기르기를 중심으로 1)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2) 키, 몸무게, 활동정도에 따라 영양 필요량이 달라진다, 3) 남녀 모두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영양권장량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영양소 필요량을 구분하였는데, 키와 몸무게와 활동정도에 따라 영양 필요량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반적인 식생활 관리와 환경 문제, 먹거리 안전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실습 위주의 내용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시간, 공간, 경제적 여건상 실습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요리 책이나 방송을 통해 음식 만드는 기술은 습득 가능하다.
- 남녀 모두 식사준비와 상차림, 설거지 및 정리정돈 등을 실습하고 식사 준비는 가족 중 누구라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
- 영양소 분석이나 설거지에 있어서는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으나 식단작성이나 음식만들기에서는 여성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항상 식생활의 중요성과 식단작성, 영양소의 역할, 조리기구의 사용방법, 설거지하기 등에 대해 남녀 같이 인식하게 하고 늘 실천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가정과목에서 식생활의 내용이 양성평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녀 모두가 식생활 단원을 배우는 입장에서 굳이 양성평등 식생활 내용이 따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남녀 모두 식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익히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 될 것 같다. 남녀 모두 가정교과를 배우므로 남학생들도 음식만들기를 하고, 조리가 단순히 여성의 일이 아니라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함께 가르쳐야 할 것이다.
- 조리 원리, 음식 만들기, 상차림 등의 성 역할 분담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 현대사회에서는 남녀를 떠나 가정에서 식생활 관련 활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조리' 부분 보다는 '식품의 선택'이나 '식단 작성'부분이 현실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필요하며, 이 영역들도 영양사가 식단을 짜듯 자세히 지도하기보다는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각 식품군별로 적절히 식품을 선택하여 매끼마다 잘 갖추어 찾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교과서에 등장하는 사진, 그림 등 작은 것이라도 남녀가 같이 하는 모습이 부족하다.
- 영양적 지식과 함께 직접 조리시간을 많이 갖고 특히 간단하고 빠른 조리법을 많이 가르쳐야 한다.

### (3) 의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식생활 영역에서 조리에 대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던 데 반해 옷만들기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실생활과 거리가 멀다로 모아졌다. 그보다는 간단한 손바느질과 수선, 세탁과 같은 온 손질하기가 양성평등 내용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식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 교육내용의 요구보다는 각 영역에서의 남녀 공동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

- 옷 만들기 보다 의복 관리 행동과 의복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보강되면 좋겠다.
- 의생활은 식생활에 비해 특히 양성평등적 입장에서 지도가 필요하다. 내용은 식생활처럼 실용주의 측면이라 교사가 양성평등적 시각만 가진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실기를 지도할 때 동기유발이나 실습과정 중에, 의복의 구매나 관리 측면에서도 남녀 동등한 참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남녀 모든 학생이 가정교과에서 옷 만들기를 하고 있고, 의복마련방법, 기성복구매요령, 옷의 취급법을 배워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옷의 손질과 보관법, 옷의 수선방법의 내용을 남녀 모두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 성별에 의한 차이가 아닌 학생의 능력과 취미를 고려한 교과 교육과 진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함.
- 상대방에 대한 예절이나 개성표현 보다는 여학생의 경우 아름다움에 치중하는 옷차림을 강조하지 않나 생각한다. 식생활 영역과 비슷하게 옷의 구매 및 관리 측면보다 만들기 영역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 문제임/ 수선 정도만 다루면 좋겠음.
- 옷의 종류나 옷의 기능, 기계 세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이 되는 것 같으나 섬유 종류, 특성, 의류 만들기, 취급방법 및 손세탁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하기 힘들, 재봉틀 다루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손바느질을 자세하게 다루기를 바라며, 현대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섬유의 종류 취급법을 알게 하여 세탁을 함에 있어 남녀모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또한 사회적 도덕성과 관련된 옷차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의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길렀으면 한다.
- 자원과 환경을 고려한 의복 선택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 '옷만들기' 부분은 현실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전무하다. '의복의 손질(세탁 등) 및 보관' 등은 양성평등한 의생활을 위해 적절하다.
- 의생활은 단추 다는 것, 기본 바느질법을 가르치고 간단한 소품정도 만드는 것이 좋다.

#### (4) 주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주생활 영역에서도 특정 교육내용이 양성평등교육에 적합하다 혹은 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대부분의 내용을 남녀공통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과 유지 보수 및 건축은 남자, 청소와 실내 인테리어는 여자의 역할이라는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구태여 반으로 나누라는 것보다 영역을 나누더라도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다른 영역보다도 주생활영역은 주택의 유지와 보수는 남자가, 그 중 청소는 여자가, 건축은 남자가, 실내 인테리어는 여자가라는 기존의 관념이 짙게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도하는 교사의 양성평등적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자신의 방 꾸미기, 주택 관리 방법, 재활용가구 이용, 가정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디자인의 요소 등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습(예:미래에 자기가 살고 싶거나 살집의 평면도 그려보기) 등이 필요하다.
- 주거의 기능과 공간 구분, 가구의 배치와 관리, 공간의 활용방법, 가족주기에 따른 공간의 형태와 미래의 생활 내용 변화에 따른 주거공간 계획, 쾌적한 실내 환경, 주택의 유지 관리 등 전 분야가 필요하다. 특정 내용보다는 성별에 의한 차이가 아닌 학생의 능력과 취미를 고려한 교과 교육과 진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주로 주거의 기능, 조명이나 채광, 환기방법, 공간 활용 등 주생활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양성평등과 관련이 부분적으로 있다.
- 집이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야 한다.
- 6차 교육과정 가정과 기술 과목에서 각각 다루어지던 부분이 7차 교육과정에서는 주생활 영역에 통합되어 남녀 모두에게 유용하게 지도할 수 있다고 본다.

## (5) 관리와 소비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관리와 소비생활 영역에서는 가사노동의 문제와 늘어나는 남성의 소비생활에 대한 내용의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교사들의 역할을 보는 입장이 분담의 개념으로 나타났으나 성에 따른 역할의 분담은 오히려 성역할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기 쉬우므로 역할의 공유라는 개념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 가사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바로 보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소비는 주부가, 또는 여자가 라는 지배적인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 등도 남녀가 같이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신의 소비생활 반성, 만족한 소비생활을 위한 방법이나 태도, 재화와 서비스의 배분, 자원 관리, 신용카드 사용의 장단점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
-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가정에서 발생시키는 환경오염문제, 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청소년의 시간과 일 관리 방법, 청소년 소비자의 책임문제 인식과 소비자 정보의 올바른 활용법, 구매의 원리와 구매 의사 결정 방법을 통한 소비 생활, 소비자 문제의 해결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 건전한 소비의식과 소비자의 역할, 자원 관리, 환경보전 등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 같다. (사회와 연관지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전개되어졌으면 함)
-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관리와 소비생활에서 남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가정관리와 소비생활에선 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물론 가정과목의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것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남녀가 장을 함께 보거나, 방 청소를 하는 남자의 모습 등이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다. 가정관리, 특히 가사 노동 관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역할 분담이나 내용이 있었으면 한다. 탐구과제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 분담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 가정자원의 관리, 가족생활 주기에 따른 가정관리, 가사노동 관리, 가정 기기 관리, 상품구매와 지불방법, 상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선택을 제대로 다루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계의 예산 및 결산 생활, 가계부 작성, 광고 속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내용도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
- ‘자원관리’ 부분이 실생활과 연결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리’와 ‘소비자 문제’ 부분은 교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매우 유용하다.
- 가정살림의 주체는 아내가 아닌 부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다.



## (6) 사회교육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평생교육으로서의 사회교육에 대해서 일반 면접 대상자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반면 교사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 내용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여 가정과교육의 전 영역의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주로 양성평등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요구하였다.

- 문화 강좌나 교양 강좌처럼 미래 사회 산업과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의사소통이나 가사노동 등에 대해 학습하여 가족원 전체가 함께 하는 가족 문화 창조의 중심이 요구된다.
- 여성들에게는 주택의 관리와 유지 보수에 관한 내용, 남성들에게는 음식 만들기 섬유별 세탁 방법, 의복 관리 등이 적합하다.
- 양성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 전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고, 남아 선호사상, 호주제도 등이 남성적 권위주의의 가정생활이 영위되었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이 양성성에서 비롯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 가정관리의 중요성- 공동 관리 및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전업주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전업주부 자신과 남편의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취업주부의 어려움(육아, 가사노동 등)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는 자세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 혼자 되었거나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 양성 평등을 위한 성인 교육은 필요하다. 남녀의 생리적인 차이는 인정하되 사회적, 정치적, 기타의 차별을 하지 않는 성역할 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 가정, 사회, 학교에서의 차별 인식, 호주제의 폐단, 속담이나 매체 등에서 나타나는 남녀 차별에 대해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
- 미래 사회의 직업 변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성차별 사례, 성 역할과 갈등 등을 다루었으면 한다.
- 개인적으로 지역사회 교육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

## (7) 가정 내 교육 교육내용에 대한

가정 내 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제시보다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그러나 가정 내 교육의 주체가 되는 양육자인 성인 자신의 양성평등의식에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문제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 평생교육은 가정 내 교육과 분리할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문제로 판단된다.

- 현 가정생활에서 부모가 양성평등의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앞으로의 사회와 가족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고 준비되도록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다.

- 물론 필요합니다. 가정 내에서 무의식적으로 남녀에게 기대되는 것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부의 가사노동 참여가 협조가 아니라 역할 분담임을 알려 내면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 가부장제(성차별)의 영향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태도(남자에게는 전통적인 남성상을 요구하고 여성에게는 주체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태도)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의 대소사에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가정 일이 곧 나의 일이고 가족 모두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란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든 함께 하려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
- 개인의 인격과 특성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교육이 필요하다.
- 부모 모두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차별적 발언이나 태도를 나타내기 쉬운 점이 우려가 된다. 부모의 태도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 요즘도 사위가 집안 일을 도와 주면 호뭇해지고 아들이 집안 일을 도와 주면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다. 먼저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 대해 남녀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딸, 아들 똑같이 경험하게 하도록 한다. 기성 세대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집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도 행동 면에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바깥 일과 집안 일을 서로 나누어 분담할 수 분위기 개선이 필요하다.
- 아직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양성평등 교육을 쓸데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마치 양성평등 교육이 무슨 여성 해방 운동 정도로 생각한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아들과 딸을 차이를 두고 키우는 것이 앞으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또 다른 차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정이 양성평등이 이루어진다면 사회가 양성평등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교육에 의해 앞으로 자녀의 양성 평등한 가정생활 여부가 거의 결정된다고 봅니다.

**시사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일반 면접 대상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의식이 낮고 특히 가정과교육에 대한 의견은 거의 갖고 있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생활영역과 질문의 본질이 다르고, 면접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응답하는 데 매우 피로한 상태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상자의 연령이 30-40대인 점을 고려하면 자녀가 어떤 교육내용으로 가정과목을 배우는지, 배워야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너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사들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내용을 다루되 양성평등의식과 가치관 개발을 꾀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젠더중심-가족중심의 교육내용으로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그에 따른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를 뒷받침하여야 할 것이다. 응답내용 중 교사 자신이 자녀양육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각자의 양성평등의식과 무의식적인 태도와 언어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교사교육과정과 교사연수를 통하여 교사의 양성평등의식을 높여야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 5. 실천비판적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가정과 교육과정 예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춘식·최유현·유태명(2001, 2002)은 실과(기술·가정)교과의 교육목표와 내용체계를 개발한 바 있다. 발표자는 가정과 부분을 담당하여 가정과교육의 실천비판패러다임과 델파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가정과 교육목표와 내용체계 개발을 위한 이론적 틀을 구안하였다. 개발된 이론적 틀은 가정과교육을 실천비판 교과로 상정하여 그 성격을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실천적 문제해결과정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교양교육적이며 실천비판적인 교과이다.'로 제안하였다. 이 이론적 틀의 특징은 가정과의 내용구조를 기존 교육과정이 1차원적이라면 내용영역(나와 가족생활, 의, 식, 주생활, 관리와 소비생활), 과정(실천적 문제해결과정을 통하여 가정생활의 기술적, 해석적, 해방적 행동을 이끔), 내용의 중점(①가정생활과 일, ②개인과 가족, 사회, 문화의 맥락, ③고등사고 능력)의 3차원으로 내용구조를 제시하였고, 가정과교육을 통하여 갖추어야 할 소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다.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비판적 접근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이 이론적 틀은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타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심영희(1997)는 하버마스를 주축으로 하는 비판사회철학이 양성평등 이슈를 다루는 데 타당한 이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다음 <표 5>에서 <표 7>은 나와 가족생활 영역의 교육목표, 내용기준 1.3.1의 내용체계화를 위한 실천적 문제해결 과정질문, 내용기준과 내용요소의 예이다. 이 예시가 양성평등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나 '가족생활과 일의 조화'라는 당면문제를 다루는 접근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양성평등 생활문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내용기준 1.3.1 가족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영위하기 위한 임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족의 일에 협동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활용한다.

<표 5> '나와 가족생활' 영역의 교육목표

대영역 목표	하위 목표
1.0 나와 가족생활을 개인과 가족, 사회,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나와 가족생활 중에 일어나는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여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1.1 개인과 가족, 사회, 문화의 맥락에서 나와 가족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1.2 나와 가족의 발달적 변화를 이해하고 나와 가족생활 중에 일어나는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1.3 가족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가족생활과 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개발할 수 있다.
	1.4 가족, 직장, 지역사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표 6〉 '나와 가족생활' 영역의 하위목표3에 따른 내용체계<sup>1)</sup>

내용 기준	내용 요소
1.3.1 가족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영위하기 위한 임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족의 일에 협동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활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생활과 일의 조화를 위한 평등한 역할 관계와 협동적 참여</li> <li>○가족생활과 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li> <li>○가족생활과 일, 여가생활의 조화를 위한 가족생활문화의 형성</li> </ul>

〈표 7〉 내용체계화를 위한 실천적 문제해결 과정질문<sup>1)2)</sup>

Z축: 내용 구성의 중점	Y축: 행동을 이끄는 문제해결과정		
	기술적 행동	해석적 행동	반사숙고적 행동
개인, 가족, 사회, 문화의 맥락	<p>(M)개인, 가족,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일은 무엇인가?</p> <p>(H)다양한 가족형태와 다양한 문화에서의 가족생활과 일은 어떠한가?</p>	<p>(M)가족의 일의 전통은 역사·문화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p> <p>(H)다양한 가족형태와 다양한 문화에서의 가족생활과 일이 차이는 배경은 무엇인가?</p> <p>(H)가족생활과 일에 대한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p>	<p>(M)가족의 일은 어떻게 행해지고 있으며, 모든 가족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p> <p>(H)다양한 가족형태와 다양한 문화에서의 바람직한 가족생활과 일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p>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	<p>(M)가족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해나가 위해 나는 가족의 일에 어떻게 협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가?</p> <p>(H)가족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해나가 위해 나는 어떻게 독립적으로 생활하여야 하는가?</p>	<p>(M)가사노동의 가치는 무엇이며, 가족구성원 모두 그 가치에 합의하는가?</p> <p>(M)가족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해나가 위해 어떻게 의사소통을 유지하여야 하는가?</p> <p>(H)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일을 하는 데는 어떤 윤리적 책임이 따르는가?</p>	<p>(M)가사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는 정당한가?</p> <p>(H)여성의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의식과 정책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p> <p>(H)가족, 직장, 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p>
고차적 사고와 행동 (배려적, 비판적, 창의적)	<p>(M)가족의 일을 수행할 때 어떻게 다른 가족 구성원을 배려할 수 있는가?</p> <p>(H)가족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해나가기 위하여 여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p>	<p>(M)가족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불평등적인 배경은 무엇인가?</p> <p>(H)어떤 여가 문화와 생활양식을 창출할 것인가?</p>	<p>(M)가족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불평등적인 의식과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p> <p>(H)여가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고정 관념은 무엇이며,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p>

11)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기준과 내용요소이다. 여기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구분을 없었다.

12) 이 표는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의 이전 개발 단계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초등 실과와 중등 기술과의 조율을 통해 단순화시켰으며, matrix 형태의 틀이 개발자의 의도와 달리 사고의 확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틀을 제거하고 질문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했다. 여기서는 내용구조의 틀을 가시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matrix 형태의 틀로 제시하였다. (M)은 중학교, (H)는 고등학교 수준을 의미한다

<표 7> 계속

Z축: 내용 구성의 중점	Y축: 행동을 이끄는 문제해결과정		
	기술적 행동	해석적 행동	반사숙고적 행동
개인, 가족, 사회, 문화의 맥락	(M)아동과 청소년, 노인을 위 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무 엇이 있으며, 우리는 그 사회적 지원체계를 어떻 게 활용할 수 있는가?	(M)가족생활에서 아동, 청 소년, 노인을 위한 사회 적 지원체계가 필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M)사회적 지원체계가 가족 의 역할을 대체할 때 생 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 야 하는가?
	(H)가족해체와 관련된 사회 적 지원체계는 무엇이 있 으며, 우리는 그 사회적 지원체계를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가?	(H)우리 나라와 외국의 가 족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H)우리 나라와 외국의 가족 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평가해 볼 때 어 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	(M)맞벌이가정을 위한 사회 적 지원체계는 무엇이 있 으며, 우리는 그 사회적 지원체계를 어떻게 활용 할 수 있는가?	(M)가족 내의 지원체계로서 의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M)가족 내의 지원체계로서 의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 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 엇을 하여야 하는가?
	(H)한 부모 가정을 위한 사 회적 지원체계는 무엇이 있으며, 우리는 그 사회 적 지원체계를 어떻게 활 용할 수 있는가?	(H)가족생활과 일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 주는가?	(H)가족생활과 일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우리의 가족생활을 왜곡 시킬 경우 어떻게 해결하 여야 하는가?
고차적 사고와 행동(배려적, 비판적, 창의적)	(M)소년소녀 가장 가정, 실 직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 원체계는 무엇이 있으며, 우리는 그 사회적 지원체 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M)소외된 가정을 위해 사 회적 지원체계의 주체로 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 가? 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M)소외된 가정을 위한 사회 적 지원체계가 미흡할 경 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가? 생활 환경의 개 선과 욕구의 충족을 위하 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H)가족생활, 일, 여가생활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는 무엇이 있으며, 우리는 그 사회적 지원체 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H)가족생활, 일, 여가생활 의 조화를 위해 사회적 지원체계의 주체로서 나 의 역할은 무엇인가?	(H)가족생활, 일, 여가생활의 조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 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 여야 하는가? 사회적 지 원체계가 미흡할 때 어떻 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 가?

**시사점:** 여기서 제시된 하위목표 1.3 ‘가족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가족생활과 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양성평등한 가정생활의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내용체계화를 위한 실천적 문제해결 과정질문은 한편으로는 가정생활과 일의 조화와 관련된 가정생활의 기술적, 해석적, 해방적 행동으로 이끌어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과교육을 통하여 갖추어야 할 지식, 태도, 실천 및 능력, 특히 비판적 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 창의성과 같은 고등사고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두는 개인과 가족, 사회, 문화의 맥락에서 가정생활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당면 문제를 나와 가족이라는 제한된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회, 문화,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관련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본다.

## 6.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방향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살펴 본 논의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여러 제안은 가정과교육에만 해당한다기보다는 양성평등교육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총론적으로 지속적인 양성평등의 개념의 정립과 관련 기초연구, 제도적 개혁,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교육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 교육적 환경 구축이 총체적으로 필요하다. 이 때 여성중심접근(WID)보다는 젠더중심접근(WAD)을 지향하며 평생교육 관점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접근한다.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으나 제안의 순서는 큰 의미 없이 나열하고자 한다.

(1) 양성평등을 정의함으로써 자칫 무조건적 혹은 획일적인 성의 무시나 배제는 교육분야에서는 위험하다. 성 차이를 무시하여야 할 부분과 성 차이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성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현재 분명한 교육의 결과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과도기적 혹은 한시적인 교육적 대책이 요구되며, 현실과 이상에 대한 판단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교육이 요구된다. 주제 발표에서 김태현(2003)이 제안한 양성평등의 정의인 ‘양성평등은 남녀간의 성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인간적 권리를 나누어 가지는 것’은 가정학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지향할 이상적인 개념임에는 분명하나 가정학자들은 이를 가정학의 입장으로 정립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를 뒷받침해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현실이나 심층면접에 나타나 바와 같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교육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의 실천적인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2) 현실을 판단할 때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양성평등의식은 높지 않다.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고려하면 그 영향을 주는 사람에 대한 치료적 평생교육이 요구된

다. 원천적인 차이 이외에 후천적인 환경의 요소에 의한 사회문화적으로 길러지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 양성평등 생활문화와 사회를 실현시킬 수 없다. 부모로부터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양성평등교육은 가정 내의 교육을 위하여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이미 성의식이 형성되어 가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교육, 지역사회에서의 성인, 특히 남성을 위한 교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때나 정책의 입안 등에 여성만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상호관계 및 남녀의 참여가 주가 되는 젠더중심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남성의 특권이 너무 강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불평등적인 원인이나 조건에 대한 여성중심접근이 정책의 주류이루었다.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 개발도 현재는 여성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성 한쪽만을 위한 정책이나 교육은 실제생활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가정학자들의 전문성을 기초로 여성중심-젠더중심-가족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젠더중심에도 한계가 있으며 양성평등 생활문화의 주된 장인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은 남녀의 관계 이상의 가족단위로 고려되어야할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전통주의적 가치가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Habermas(1987)가 주장한 '생활세계의 식민화'의 반대 현상인 '체계로의 침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이 체계를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4)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운동을 가정과교육 과정과 활동내용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운동은 개인이 공론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앞서 언급한 '체계로의 침투' 현상은 생활세계가 체계와의 상호관계에 영향력을 주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힘이 되므로 시민참여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의 실질적인 방법이 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은 생각은 양성평등적인 체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생활세계의 주체가 양성평등의식이 높지 않으면 체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말해 준다. 가정과교육에서는 사회 참여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교과활동과 시민활동을 동시에 이루도록 해줄 수 있다. 심영희(1997)가 제안한 양성평등 제도화 방안인 제도 내부의 개혁과 공론영역에서의 영향력 행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생활세계의 주체인 개인과 시민이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과 시민의 생활을 생활세계의 사적영역에 국한하지 않으며 생활세계의 공론영역과 체계의 공론영역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전략이다. 여기서의 전제는 의사소통적 행동과 숙고적, 비판적 의식을 가진 성숙함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5) 양성평등 의식 고양 혹은 양성평등 문화를 위한 가정과 교육과정과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교수·학습방법 모색, 학업성취 및 선호하는 교수·학습방법의 성별 차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축

적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의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그로부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이 요구된다.

(6) 교사교육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이념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사의 성 역할 의식 및 성 차별적인 태도, 교수방법, 진로지도, 생활지도가 잠재적으로 학생의 교육경험에 영향을 주므로 교사 교육과정의 교과교육, 전공, 교직과목에 양성평등 이념을 주류화시킬 필요가 있다.

(7) 양성평등 관련 교육정책 입안이나 교육과정 개발 시 교육의 '기회와 조건'의 평등뿐만 아니라 교육의 '과정이나 경험'을 고려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결과'와 교육을 통한 실제 생활에서 '행동과 판단, 배려로 실천'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에 접근해 나가야 한다. 특히 실천교과로서의 가정교과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의 고양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서 양성평등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와 내용, 학습활동을 통하여 교육할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그럴 때 양성평등 생활문화와 사회가 실현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양희 · 김경희 · 김홍숙 · 이수연(2001). 21세기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을 위한 국민 여론 및 전문가 의견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김재춘 · 왕석순(19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양성 평등 교육 실현 방안 연구-5개 교과 양성 평등 수업 지도 방안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대구남산여자고등학교(2002). 성평등 증진 교육활동을 통한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
- 심영희(1997). 보호, 평등, 차이의 딜레마: 한국 페미니즘의 상황과 양성평등을 위한 모색. 한양대 사회과학논집, 16, 317-366.
- 오욱환(1996). 학교교육과 불평등. 서울: 교육과학사.
- 이진분 외(1995). 성평등 문화를 여는 교육. 또 하나의 문화.
- 이춘식 · 최유현 · 유태명(2001). 실과(기술·가정) 교육목표와 내용체계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춘식 · 최유현 · 유태명(2002). 실과(기술·가정) 교육목표와 내용체계 연구(I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경원(1996).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 교과교육연구, 21(1), 3-17.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 최경희(2001). 과학교과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전략 및 자료개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1(1).
- 한국여성연구소(1999). *새 여성학 강의*. 서울: 동녘.
- 한림고등학교(2002).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정착*.
- Amot, A.(1985). Current development in the sociology of women's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6(1), 123-130.
- Apple, M.(1982). *Education and power*. Boston: Routledge and Kegan Paul.
- Beyer, L. E & Apple, M.(1988). *The curriculum: Problems, politics, and possibilities*. Albany: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Habermas, J.(1984).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 Habermas, J.(1987).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 Houston, B.(1985). Gender freedom and subtleties of sexist education. *Educational Theory*. 35(4). 359-369.
- Huston, B.(1994). Should public Education be gender free? Stone, L.(Eds). *The Education Feminism* Routledge.
- Mackinnon, C. A.(1987). *Feminism Unmodifi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dball, M. E.(1989). *Women's colleges: Exceptional conditions, not exceptional talent, produce achievers educationg the majority*. New York: MacMillan. UN/DAW/EDLAC(1998)
- Vogel, L.(1993). *Mothers on the Job*. New Jersey: Rotgers University Press.
- Young, I. M.(1990). *Justices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